

이용자위원회 회의록

회의일시	2026년 10월 8일 (19시 00분 ~ 21시 00분)	장 소	서울청년기지개센터 2층 다락2
참 석 자	조하늘, 권현우, 김영민, 성시현, 정수미, 신용천, 차진호, 박수현, 장유림, 임예찬, 임현빈, 송정원, 장유림, 김혜영, 임하린 팀장, 전해인 부장 (총 16명)	작성자	이유진, 임하린
		진행자	조하늘
회의명	이용자위원회 2차 회의		
회의 결과 및 센터에서 논의할 안건	1. 권역센터 운영 격차 해소 - 거주지 기준 권역센터 배정은 현행 유지.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제안형 프로그램 도입 등 방안 검토 2. 고립은둔청년에게 적합한 직무·직업 교육 필요 - 단순 자격증 교육보다 더 실용적인 공백기 커버를 위한 취업특강, 자소서/이력서의 기초 개념부터 배울 수 있는 특강 등 고립·은둔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 3. 일경험 프로그램의 조직화 - 단순 서무, 기획 및 운영이 포함된 일경험, 인턴쉽 등 일경험 프로그램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수요에 맞는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람 4. 프로그램 공백기 대안 마련 - 12월~2월 사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청년의 프로그램 이용 공백이 발생함. 비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중심의 자조모임 등을 우영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5. 청년강사 양성(프로그램 공백기 대안 마련 중 의견) -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는 12월~2월 공백기 동안 재능을 가진 청년에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, 강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해주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- 강사비 대신 활동 인증서와 자원봉사시간 등 부여하는 방법이 있음		
회의진행 내용 및 참석자 의견	공지: 녹음 고지 목차: 안건 123, 마무리, 다음 회의 일정(대략) 안건 0. 권역센터별 활동 격차 관련 • 설문 결과 권역센터별 활동량 및 프로그램 운영에 격차가 있다는 의견이 2건 이상 접수됨. • 센터 측 답변 권역센터의 취지는 청년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 권역센터마다 운영 상황과 여건이 달라 일정부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. 특정 권역센터에 활동이 집중될 경우 권역 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.		
	안건 1. 교육·자격증 및 취업 준비 프로그램		

1-1. 교육·취업 준비 프로그램 방향

- 면접·자기소개서 특강 운영 제안
 -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**처음 작성하는 청년을 위한 기초 특강** 필요
 - 이력서가 무엇인지,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 **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특강**이 진행되어야 함
 - 기존 이력서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방식은 초기 참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
 - 이력서 작성 → 경험 정리 → 첨삭 등 **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** 제안
- 면접 준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의견
 - 직무 선택보다 실제 면접을 더 어려워하는 청년이 많음.
 - 면접 및 이력서에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표현할지에 대한 교육 필요
 - 모의면접의 경우 서로 익숙한 참여자보다 **서로 모르는 참여자 간 진행**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
- **공백기 대응 특강** 제안
 - “공백기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?”와 같은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별도 주제로 운영
 - 공백기를 이해하고 있는 강사가 진행하는 이력서·면접 특강 필요
 - 공백기 관련 온라인 콘텐츠가 많으나, 센터에서 이를 청년의 상황에 맞게 안내·연계할 필요

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기존 청년기관 사업과의 **중복 가능성**이 있다는 의견

기지개센터의 대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취업기관과는 **차별화된 프로그램** 구성 필요

1-2. 자격증 프로그램

- 타 센터의 바리스타 자격증 프로그램 사례 공유
-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 제안
 - 바리스타 2급
 - 드론 자격증 등

자격증을 통해 스펙을 쌓거나, 호기심으로 참여한 후 관심 분야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견

반면, 자격증이 실제 아르바이트·실무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도 제시됨.

국내 자격증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**자격증 취득 자체보다 취업 준비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**가 있다는 의견

자격증은 취업 준비 이후의 보완적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

1-3. 프로그램 유형 및 차별화

- 스피치 특강, 이미지메이킹 특강 등 제안
- 퍼스널컬러, 목공 등 기존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의견

- 프로그램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

- 체험형 프로그램
- 직무 경험형 프로그램
- 취업 준비형 프로그램
- 관계·사회적 기술 훈련

홈페이지에서도 프로그램을 취업 희망 / 취미·천목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방안 제안

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기지개센터의 전체적인 사업 방향과 톤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

1-4. 일경험 프로그램

- 일경험 사업은 기관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.
- 단순 서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**기획·콘텐츠 제작 등 실질적인 직무 경험이 어렵다**는 의견
- 청년재단 등 일부 사례에서는 기획 및 카드뉴스 제작 등 직무와 연계된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나, 이러한 기관이 많지는 않음.
- 첫 사회 경험을 시작하는 청년에게는 일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, **실질적인 경력 형성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한계가 있다**는 의견
- 일경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청년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
- 청년의 준비 수준에 따라 **첫 발을 내딛는 단계와 취업 준비 단계 등을 구분하여 운영**하는 방안 제안

1-5. 초기 고립·은둔 청년 대상 프로그램

- 기지개센터의 대상은 일반적인 취업 준비 청년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- 특히 무기력, 생활패턴 변화 등 **고립·은둔 단계의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**이 부족하다는 의견
- 취업을 희망한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취업 후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, 취업 의지와 실제 준비 수준 간 차이가 존재함.
- 정신적·신체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실패 경험으로 인해 **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**는 우려 제기
- 따라서 취업 자체보다 **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및 자신감 형성**을 우선할 필요
- 스펙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첫 경험을 제공하는 특강·활동 필요
- 청년이 사회에 나가기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필요

1-6. 관계 형성 및 사회적 기술 훈련

-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이 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
-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경험 자체를 연습할 필요가 있음.
-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 및 사회적 기술을 지원하는 **별도 관계기술 훈련 프로그램**

랩제안

- 취업뿐 아니라 사회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 형성·의사소통 역량도 함께 지원할 필요

1-7. 직무 탐색 및 연계

- 청년별로 원하는 직무와 분야가 매우 다양함.
 - 전공 기반
 - 관심 분야
 - 적성 탐색
 - 실제 취업 희망 여부 등

다양한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교육을 진행한 후, **직무별 적합한 기업·기관과 연계**하는 방안 제안

고립·은둔 청년의 초기 원활한 업무 적응을 위해 이해도가 높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나,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없이도 직무 수행이 가능한 단계까지 도달해야 함

일반 기업 취업에 필요한 부분까지 기지개센터가 모두 직접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**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**하다는 의견

1-8. 참여 유도 및 초기 접근

-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구성해도 외부 활동 자체가 어려운 청년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견
- 신청 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프로그램으로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.
- 문고리 대화, 문밖에서의 접촉 등 **집 밖으로 나오는 단계부터 지원하는 접근** 필요
-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 역시 고립·은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**부모 교육 필요성** 제기
- 고립·은둔 청년을 일방적으로 ‘발굴’하기보다 **스스로 찾아오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복귀 경험을 제공하는 것**이 중요하다는 의견
- 청년 시기에 한 번이라도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해본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

1-9. 권역별 프로그램 구성

- 종량·동대문 권역 등에서 **활동적인 프로그램 / 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분화**하는 방안 제안
- 취업 프로그램의 경우
 - “당장 필요한 사람”에게는 유용할 수 있으나
 - 외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지개센터에서 다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

권역별 특성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필요

안건 2. 연말·연초 시즌 프로그램 개설

2-1. 겨울철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

- 연말·연초에는 외부 프로그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**겨울철 활동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**가 있음.
- 겨울철에도 청년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
- “겨울잠을 재우면 안 된다”는 취지에서 비활동 기간을 줄이는 방안 논의

2-2. 온라인·비대면 프로그램

-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검토
 - 다 같이 운동 인증
 - 온라인 자조모임 등

서울청년기지개센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 제안

기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별도의 강사 섭외 없이 함께 체험하는 방식도 제안

- QR코드 등을 통해 콘텐츠 안내
-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체험

2-3. 자조모임 및 공간 활용

- 자조모임 등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별도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음.
- 권역센터의 공간 수요가 상당하다는 의견
- 홈페이지 내 자조모임 관련 메뉴·게시판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
- 재료만 준비하면 진행할 수 있는 양말목 등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제안

2-4. 청년 재능기부·청년 강사 활용

- 청년 재능기부 공모를 통해 겨울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제안
- 청년을 강사로 활용하거나 청년 강사 양성으로 연계하는 방안 논의
- 다만 지속적인 운영 및 커리큘럼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.
- 청년 강사에게 경력을 요구할 경우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**열정페이로 인식될 가능성**도 고려 필요
- 각 청년센터와 연계하거나 관련 예산을 청년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
- 강사비 지급 시점을 조정하여 봄철에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
- 공모전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, 상금·포상 또는 명예 등을 제공하는 방식 제안

2-5. 겨울철 특화 활동

-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·홈파티 등 기존 사례 공유
- 겨울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 제안
 - 핫팩 등 겨울 물품 지원
 - 서울시 아이스링크, 크리스마스 마켓 등 외부 행사 연계

겨울철에도 청년들이 **집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는** 계기를 제공할 필요

2-6. 예산 및 운영상의 제약

- 12~3월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질의
- 센터 측 답변
 - 정산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됨.
 - 차년도 예산은 3~4월경 집행되는 구조로, 연말·연초 운영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.
 - 시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.

프로그램 운영 시 비용을 참여자에게 받는 방식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, **센터 측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.**

사회복지 후원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 필요

취미·일 등 특정 활동을 찾지 못하는 청년에게 **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콘텐츠**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

안건 3. 청년 제안형 프로그램 도입

3-1. 청년 의견 기반 프로그램 운영

- 관악 권역 설문 결과, **권역센터 프로그램의 시간대가 아쉽다**는 의견 확인
-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방식 도입 제안
 - 1분기부터 월 1개 정도 청년 제안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
 - 구글폼 등을 통한 상시 의견 수집

현재 정적인 프로그램 및 공예 중심 프로그램이 많다는 의견

동적인 활동 등 청년이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필요

청년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으로 연결되는 구조 마련 필요

3-2. 중앙-권역센터 간 관계 및 역할

- 기지개 **중앙과 권역센터가 수평적인 관계**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음.
- 권역센터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 필요
- 다만 15개 권역센터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까지 중앙센터에서 개입하기 어려움
- 권역별 실무 인력이 1~2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·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
-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으로, **권역 실무자 회의에서 프로그램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논의**하는 방안 제안

3-3. 프로그램 운영 원칙

- 특정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센터 측 입장
-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.
- 권역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전체 센터 차원의 방향성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
- 향후 **청년 의견 수렴 → 권역 검토 → 중앙과 협의 → 프로그램 운영**으로 이어

안건 4. 운영 시간대 다양화 및 요일별 분반

- (영등포) 동아리·자조모임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, 참여자가 원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영수증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
- 시간대 다양화가 가능하며, **권역 재량으로 운영**하는 방안 제안
- (의견)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 - 과거 유사한 문제 사례가 있었음

센터 안내사항)

- 노쇼나 취소에 대한 규정 공통기준 적용

의견1) 다 신청하고 다 노쇼하는 경우가 있어서.

의견2) 노쇼 빈번한데 공평하지 않다는 사례 5건 이상 있었음.

- 음식 사진 같은 경우 다른 청년들에게 안내 해주면 좋을듯

결정사항: 기본적인 사항은 안건 나온 것들 중에 결정

후속조치사항(담당자/기한): 11월 초, 평일 저녁 (추후 결정)